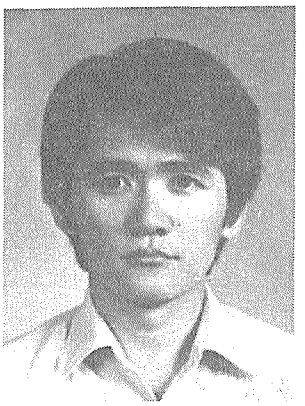
특집

□ OPEC 原油価格 인하 이후 □

国際石油市場의 최근 動向과 전망



李 東 根
〈海外建設協會 · 研究役〉

OPEC(石油輸出國機構) 會員國들은 지난 1月 28日부터 3일간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개최된 第73次 臨時總會에서 基準油인 사우디産 輕質油의 公示価를 배럴当 1달러 인하하고, 油種間 価格差를 종전의 배럴当 4달러에서 2.4달러로 축소 조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OPEC의 加重平均公示価를 배럴当 28.85달러에서 27.96달러로 29센트 인하하였다.

이와 같이 OPEC이 지난 83년 3월에 公示価를 배럴当 5달러 인하한데 이어 이번에 다시 公示価를 소폭이나마 인하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지난 81년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石油의 공급과잉이 지속되어 現物油価가 公示価를 크게 하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해 3/4분기중에 弱保合勢를 보였던 現物油価가 10月 이후 高級輕質油를 중심으로 急落勢로 돌아섬에 따라 高級輕質油를 주로 생산하는 노르웨이와 英国이 油価를 인하한데 이어 OPEC 會員国인 나이지리아도 公示価를 배럴当 2달러 인하하여 급기야는 油価인하경쟁이 OPEC 내부로까지 飛火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하에서 지난해 12月에 열린 第72次 OPEC 定期總會에서 회원국들이 강력한 油価防禦決意를 보여주지 못함에 따라 금년에 들어와서도 現物油価는 계속 하락세를 나타내었다.

공급과잉 요인

이와 같이 国際石油市場이 공급과잉을 지속하고 있는 요인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83년 3월의 油価인하와 景気回復에도 불구하고 世界石油수요가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84년중 自由世界 石油소비는 하루 4,630萬배럴로 전년대비 2.3%, 物量으로는 하루 100만배럴 정도 늘어났다. 그러나 이는 84년중 自由世界의 実質GNP 성장률 5%의 半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80~83년중의 石油소비 감소량인 하루 700萬배럴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처럼 自由世界의 石油소비 증가율이 GNP 성장률을 크게 하회하고 있는 것은 70년대 중반부터 石油消費国들이 강력하게 추진해온 에너지 소비절약과 效率提高 및 石油代替에너지 사용증대 정책이 상당

自由世界 石油需給 推移

(單位 : 百萬B/D)

	79	83	84[1]	85[2]
需要	52.5	45.2	46.3	46.7
先進國	41.6	33.8	34.8	35.0
開途國	10.8	11.3	11.5	11.6
在庫變動	1.2	− 0.4	− 0.1	−
生産[3]	53.8	44.7	46.1	46.7
非OPEC[4]	22.1	26.2	27.5	28.1
OPEC	31.7	18.5	18.6	18.6

註 : 1) 推定値
2) 展望値
3) 천연가스 포함.
4) 共産圈에서의 輸入 포함.

〈資料〉 Morgan Guaranty Trust Company, World Financial Markets, Jan. 1985.

한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지난 80년 이후의 달러貨 强勢도 美国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石油수요 증대를 제약하여 결과적으로 自由世界 전체의 石油소비를 크게 늘어나지 못하게 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石油소비국들의 自国通貨表示 石油価格 추이를 살펴보면 英国과 프랑스의 경우는 81년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 西独도 83년 4月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다. 日本의 自国通貨表示 石油価格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달러貨표시 石油가격의 하락세에 비해서는 대단히 완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非OPEC産油量의 증가

둘째, 非OPEC의 産油量이 지난 80~83년간의 石油소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늘어났다는 점이다.

지난 84년중 非OPEC의 産油量은 79年에 비해 24.4% 늘어난 하루 2,750萬배럴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自由世界의 全体産油量에서 非OPEC의 産油量이 차지하는 비중도 79년의 39.8%에서 84년에는 57.9%로 18.1% 포인트 높아졌다. 이것은 第1次 石油波動 이후 石油消費国들이 石油輸入代金負擔을 줄이기 위해 油価急騰으로 經濟性이 크게 높아진 自国内 石油資源開發에 온갖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두 차례에 걸친 石油波動을 거치면서 OPEC이 안정적인 石油의 供給源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한 石油輸入國들이 가능한 한 OPEC産 石油를 기피하고 非OPEC産 石油를 選好하는 경향을 보인 것도 非OPEC의 産油量이 급증한 主要因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중에 개최된 수차례의 OPEC 石油相 會議에서 이란 등 일부 강경파 국가들이 OPEC이 油価를 引下하더라도 非OPEC産油国들이 油価를 비슷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한 OPEC의 産油量이 늘어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OPEC의 石油輸出收入이 줄어들게 될 것이므로, OPEC의 石油輸出收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油価를 인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원인의 하나도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실제로 84년중 自由世界 石油消費 증가의 대부분이 非OPEC의 産油量 증대로 충당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石油소비의 부진

세째, 石油소비 부진과 油価하락으로 대부분의 石油輸出国들이 심각한 外換부족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980년에 1,050億 달러에 달하는 黑字를 기록하였던 OPEC의 經常收支가 83년에는 270億 달러의 赤字를 기록하였으며, 각국의 緊縮政策이 상당한 성과를 거둔 84년에도 100億달러의 赤字를

OPEC 經常收支 推移

(單位 : 10억달러)

	1980	1983	1984
總輸出	308	188	183
石油收入	281	158	153
非石油收入	27	30	30
總輸入	− 212	− 228	− 203
投資收入	16	18	13
公的移轉	− 9	− 5	− 4
經常收支	103	−27	−10

〈資料〉 Morgan Guaranty Trust Company, World Financial Markets, Jan. 1985.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OPEC會員国中 經常收支가 적자를 보이지 않은 나라는 쿠웨이트, 카타르 및 UAE 뿐이며, 세계최대의 石油輸出國인 사우디를 포함한 나머지 10개국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經常收支 赤字를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막대한 海外投資資産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産油国을 제외한 대부분의 産油国들은 石油輸出收入의 증대가 절실한 실정에 처해있기 때문에 制限된 시장을 놓고 치열한 수출경쟁을 벌이지 않을 수 없는데, 바로 이것이 石油의 공급과잉과 油価하락을 가속시킨 주요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石油공급과잉으로 油価가 하락하면 各産油国들이 自国의 石油輸出收入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해 다시 油価인하를 통한 産油量 증대를 도모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재고보유의 기피

네째, 精油會社, 石油製品 都·小賣商 및 소비자들이 재고보유를 기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필요한 量의 石油를 적절한 시기에 싼 가격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재고보유의 誘因이 크게 줄어든데다 國際高金利로 재고보유비용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精油會社 등은 보유재고를 줄이기 위해 在庫油를 大量방출함으로써 石油의 공급과잉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실제로 83년 3월의 油価인하와 최근의 油価인하압력의 상당부분은 하루 300~500萬배럴로 推定되는 재고방출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섯째, OPEC이 現物 및 石油製品市場에 대한 진출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石油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OPEC이 생산한도를 감축하고 이를 각국별로 할당함에 따라 石油輸出收入의 증대가 절실한 회원국들은 現物市場을 통한 石油輸出을 강화하게 되었다. 이것은 長期契約에 의한 石油수출과는 달리 現物市場을 통한 石油輸出은 거래량을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 생산한도를 위반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OPEC의 精油能力 및 石油製品 輸出可能量 전망

(單位 : 千B/D)

	現精油能力 (1982/83)	稼動이確實한 新規精油施設	1987年의 정유능력	計劃또는檢討中인시설	1990 精油能力	1990 國內消費	1990 輸出可能量[1]
페르시아灣沿岸國	2,185	1,835	4,020	685	4,705	2,371	2,334
사우디	740	1,295	2,035	—	2,035	806	1,229
쿠웨이트	590	205	795	—	795	87	708
UAE	130	45	175	185	360	210	150
이란	545	—	545	500	1,045	772	273
이라크	170	240	410	—	410	485	−75
카타르	10	50	60	—	60	11	49
其他會員國	2,750	665	3,415	395	3,810	1,804	2,006
에콰도르	85	—	85	80	165	154	11
베네수엘라	1,360	—	1,360	—	1,360	432	928
가봉	20	—	20	—	20	53	−33
리비아	130	220	350	10	360	171	189
알제리	435	—	435	—	435	144	291
나이지리아	260	—	260	—	260	238	22
인도네시아	460	445	905	305	1,210	612	598
合計	4,935	2,500	7,435	1,080	8,515	4,175	4,340

註 : 1) 精油施設이 完全稼動될 경우의 輸出可能量임.

〈資料〉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OPEC and the World Refining Crisis, 1984.

또한 사우디, 쿠웨이트 등 일부 産油国들은 附加価値 증대를 위해 精油 및 石油製品市場에 대한 진출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石油공급과잉을 加重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80년대에 들어와서 많은 精油工場들이 폐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당한 過剩精油施設에 남아있는 현상황에서 OPEC의 精油施設 확충은 石油製品価格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결국 石油의 現物価格에 영향을 미쳐 公示価 인하압력을 가중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OPEC의 油価構造에는 石油製品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石油製品을 現物市場의 가격으로 수출할 경우 사실상 油価를 할인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야기시키게 되는 것이다.

油価下落견해

대부분의 石油전문가들은 이번 OPEC總會 이후 現物油価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北半球의 추운 겨울날씨가 소련의 輸出減少 등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OPEC이 금년 3～5월경에 또 한차례 公示価를 인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같이 전망되는 근거로는 우선 同기간이 전통적으로 石油소비가 줄어들고 西方石油會社들이 在庫油를 방출하는 계절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금년에 들어와서 OPEC의 하루 産油量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550萬배럴로 OPEC이 지난 해 10월의 臨時總會에서 결정한 잠정적인 생산한도인 1,600萬배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날씨가 따뜻해질 경우 OPEC의 産油量이 하루 1,400萬배럴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지난 83년 3월에 OPEC이 史上 처음으로 公示価를 인하할 당시와 비슷한 수준인 것이다.

또한 OPEC이 이번 總會에서 油価防衛를 위한 강력한 결의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도 추가적인 油価하락을 점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OPEC의 油価방어에 대한 의지는 国際石油市場의 向方을 크게 좌우하는데, 그것은 油価하락을 기대하고 石油의 구매를 미루어온 精油會社, 石油製品 都·小賣商 등이 더 이상 油価하락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石油구입에 나서도록 하는 심리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OPEC의 분열

OPEC도 이와 같은 사실을 認識하고 總會開催 이전에 활발한 막후교섭을 통하여 회원국들간의 견해차를 좁히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OPEC은 이번 總會에서 그동안 OPEC의 結束의 상징이었던 基準油価制를 사실상 폐지하고 価格構造조정도 회원국간의 이해대립을 해소하지 못한 채 종래의 만장일치제 대신 多數決을 통해서 간신히 결정함으로써 회원국 상호간의 분열을 外部에 公式的으로 노출시켰다. 뿐만 아니라, OPEC의 초청으로 이번 총회에 업저버 자격으로 참석했던 멕시코, 이집트, 말레이지아 및 브루네이 등 非 OPEC 産油国들중 이집트 石油相이 회의의 혼란에 불만을 품고 OPEC과의 絶縁을 선언함으로써 OPEC과 非OPEC 産油国들간의 협조체제구축을 위한 노력도 알단은 실패로 끝났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요인으로 油価가 금년중에 한 차례 더 인하될 경우 그 인하폭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이에 대해 대부분의 石油전문가들은 油価가 배럴當 1～2달러 정도 더 인하될 가능성이 가장 크며, 이보다 더 인하될 경우에도 最大下落幅은 배럴当 4달러로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처럼 油価가 금년중에 배럴当 20달러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들은 그 근거로서 非OPEC 産油国들의 일부 油田의 경우 生産原価가 배럴當 20～25달러에 달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油価안정 주장도

이와 같은 일반적인 전망과는 달리 금년중에 油価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月 IEA(国際에너지機構)가 발표한 전망에 따르면, 금년 1/4분기중 OPEC産 石油에 대한 수요가 하루 1,700～1,750萬 배럴에 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OPEC의 実際産油量은 1,500～1,550萬배럴에 그쳐 西方石油會社들의 재고수준

이 80년 이래 가장 낮은 71日 消費分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OPEC이 하루 1,600萬배럴로 되어 있는 잠정적인 생산한도를 遵守할 경우 現物油価의 하락세가 멈추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최근 国際石油市場에 나타난 주요한 특징의 하나인 重質油価의 강세 및 輕質油価의 약세현상이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앞으로 날씨가 따뜻해지면 燃料油의 소비는 줄어드는 반면 많은 사람들이 관광, 여행 등에 나섬으로써 揮發油 등 輕質石油製品의 소비가 늘어나 輕質原油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지난 해 하반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英国 炭鉱勞組의 파업이 石炭의 非盛需期에 들어감에 따른 勞組의 양보로 타결될 경우 重質原油의 수요가 하루 50~70萬배럴이나 줄어들게 되어 重質油価의 강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予想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최근 수차에 걸친 OPEC 總會에서 최대의 爭點이 되어 왔던 価格差 조정이 쉬워져 OPEC의 結束이 다소나마 강화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油価인하를 先導해 왔던 英国, 노르웨이 및 나이지리아 등 高級輕質油 생산국들이 輕質油 現物価格의 상대적인 강세에 힘입어 더 이상 油価를 인하할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油価下落의 영향

오늘 날 생활경제에 있어서 石油와 관련이 없는 부분이 거의 없는 만큼 대부분의 石油專門家들의 전망처럼 앞으로 油価가 더욱 하락하면 經濟全般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하에서는 油価가 最大下落可能幅인 배럴当 4달러 하락할 경우를 가정하여 세계경제 및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간단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油価하락이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면, 먼저 OECD의 물가가 石油製品가격의 하락에 힘입어 0.5~0.7% 포인트 하락하고 이에 따라 0.5% 포인트 정도의 金利下落要因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선진국의 경제성장률도 0.5% 포인트 높아지고 그 결과 실업률은 0.1~0.2% 포인트 정도 낮아질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것은 物価下落에 따른 実質所得 증대와 金利하락으로 소비 및 투자가 늘어나고 각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景気浮揚策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경제성장의 가속에 힘입어 世界交易量도 1%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油価하락이 국제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면, 国際金融危機의 再燃憂慮 등으로 借入與件이 단기적으로는 다소 악화될 것이나, 이러한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 물가하락을 반영하여 국제금리가 0.5% 포인트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石油輸入代金이 줄어든 선진국으로부터의 資金流入이 늘어나고 主 借入国인 非産油開途国의 차입수요가 油価 및 금리의 하락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우리 나라는 石油를 全量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油価하락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앞에서 설명한 것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油価가 배럴当 4달러 하락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주요 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률이 1% 정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実質購買力 증대에 따른 소비 및 투자의 확대와 세계경제의 성장가속에 힘입은 수출증대로 1.6% 포인트의 플러스 효과가 발생하지만, 對産油国 商品 및 건설수출 감소로 0.6% 포인트 정도의 마이너스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나라의 경상수지도 연간 7億달러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細分하여 살펴보면, 石油輸入代金의 감소 및 非中東지역의 商品輸出 증가로 14億달러 정도의 經常收支 改善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対中東 건설 및 商品輸出 감소와 국내성장가속에 따른 輸入增大로 7億달러 정도의 경상수지 악화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의 物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油価하락의 전부를 石油製品価格 하락에 반영시킬 경우 直·間接효과를 합하여 2.6% 포인트의 도매물가 하락요인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換率상승으

로 현재 石油製品가격의 引上要因이 있는 데다 石油製品가격을 크게 引下할 경우 石油소비 증가가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등으로 정부가 油価하락의 전부를 石油製品価格의 下落에 반영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될 경우 油価하락에 따른 물가하락요인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

□ 産油国動向 □

革命6주년 맞는 이란의 최근 動向

금년 2월로 혁명 6주년을 맞는 이란은 거듭되는 격동속에서도 정권의 안정과 새로운 국가건설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이란—이라크 전쟁이 격화되고, 국가재정을 뒷받침해줄 石油수출이 감소하는 등 이란을 둘러싼 환경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역경을 이겨내려는 강력한 현체제는 국내정세를 재정비하면서 적극적으로 외교활동을 전개하여 난국을 타개할 길을 모색하고 있다.

体制內 대립 표면화

이란의 최고지도자 호메이니翁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절대적 권위와 뛰어난 정치력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그러나 체재내에 어느 정도 마찰이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이것은 석유수출의 감소로 경제정책을 둘러싼 체재내의 의견대립이 표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국가 재정기반 확립을 둘러싼 세제개정 문제와 민간자본의 활용문제 등에도 미묘한 영향을 주고 있다.

작년 5월 하르그섬 주변에서 이라크 공군기가 유조선을 공격한 이후, 이란의 石油수출은 점점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럴 적마다 이란은 보험료등의 코스트 상승분을 할인해 주면서 하루 약 180만배럴 전후의 수출을 확보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현지 석유관계 소식통에 의하면, '84년도의 石油收入은 당초 전망 약 200억달러를 크게 밑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개년 계획을 축소

국가재정의 기반이 되는 石油수출이 당초예상을 밑돈다 하더라도 국가의 최우선과제인 국방비(총예산의 약30%)를 줄일 수 없는 실정이다. 그 악영향은 외국무역과 개발 프로젝트에 나타나게 되었다. 이란은 83년도부터 의욕적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착수하였으나, 석유수출의 감소로 규모를 축소하기 시작했다. 라쟈이 화력발전소, 이란중부·사주체슈메의 鋼재련소 등과 같이, 우선도가 높은 에너지, 자원관계 중요 프로젝트를 제외하면 계획이 지연되는 예가 많다. 일단 「전쟁도 하며, 경제개발도 한다」는 여유를 보였던 이란이 지금은 긴축형 경제체제를 굳히고 있는 것 같다. 단, 이러한 경제정책을 둘러싼 잡음이 전체적인 정치노선과 이란-이라크 전쟁의 전략면에까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막대한 희생을 요구하는 대규모 공세는 우선 피하고, 희생을 최소한 줄이면서 효율적인 작전을 전개하므로써 이라크의 국력을 소모시키려는 것이 이란의 전략이다.

国際的 고립 탈피

이러한 가운데 최근 이란의 수뇌들 사이에서는 「対이라크戰爭은 정치적 국면이 군사적 국면보다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작년 5월 이후 이란의 외교활동이 매우 활발해지고 있다. 하메네이 대통령이 작년 가을 처음으로 시리아, 리비아, 알제리등 3개 우방국을 방문한 것을 비롯해 무사비 수상이 1월 터키와 니카라과를, 벨라야티 외무상 등 정부 각료들이 日本, 유럽, 中東등 각국을 잇달아 방문하고 있다.

이란은 동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외교정책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기본자세는 지금도 변함이 없으나, 일련의 외교활동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호메이니翁은 작년 10월말 벨라야티 외상과 해외주재 대사등을 모아놓고 『이란은 몇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와의 외교관계를 수립해야 된다. 이에 반대하는 생각을 추진하면, 이슬람 혁명을 지킬 수 없다』며 활발한 외교정책의 전개를 지시한 바 있다. 혁명을 일으킨지 6년. 이란은 많은 내우외환을 겪으면서도 그 문호를 서서히 넓혀 국제적인 고립상태를 탈피하고 있다.